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여자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애착양식의 분류를 위해서는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IPPA가 사용되었다. 애착양식과 MMPI 및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정도와 MMPI의 관계는 변량분석에 의해 검토되었고 판별분석은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과 MMPI의 반응패턴에 따른 관계를 확인하였다.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중 회피적 애착양식 집단이 가장 큰 부적응적 경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부적응적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정상집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MMPI의 모든 하위척도 점수들이 정상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개인의 부적응이나 병리적 경향성은 대단히 어린 연령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애착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적응이나 안녕과 관련되어 있을 뿐아니라 (장휘숙, 1997a; Paterson 등, 1995; Armsden과 Greenberg, 1987; Greenberg 등, 1983)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성인의 우울증을 포함하여 정서적 괴로움과 연합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Roberts 등, 1996; Armsden 등, 1990; Kobak & Sceery, 1988).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 임상표본에서 애착이 자살행동(Adam 등, 1996)이나 정신병리(Rosenstein & Horowitz,

1966)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애착이 병리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불안정한 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Sroufe, 1988), 정신병리를 정상적 발달경로로 부터의 이탈로 간주하는 발달적 경로 조망(발달정신병리학적 조망)에서 볼 때, 애착의 질적 특성은 개인의 발달적 이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Overton & Horowitz, 1991).

애착이란 영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정적 유대로서 그것은 영아 자신의 보호와 생존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근접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며 근접행동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은 영아가 양육자로 부터 신체적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Bowlby(1969)에 의하면, 애착행동은 진화의 결과로서 영아의 생존을 가능하게 함으로 거의 모든 영아들은 어떤 유형의 애착이든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Bowlby, 1988). 실험실 절차를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을 연구한 Ainsworth 등(1978)은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확인함으로써 영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양육자의 반응성과 접근가능성에 따라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Ainsworth 등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환경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 애착체계를 적절하게 활성화할 수 있고 위협이 해결되면 재빠르게 탐색행동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불안정하게 애착된 영아들은 양육자에게 효과적으로 근접할 수 있기 위하여 2차적인 행동전략을 모색한다. 그 예로서 회피적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양육자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괴로움의 표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형성하는 반면, 불안한/양가적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보살핌과 관심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비록 어떤 연구도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종단적으로 애착양식을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후속된 횡단연구들(Main & Goldwyn, 1994; Mikulincer 등, 1990; Hazan & Shaver, 1987)은 영아기에서 발견된 애착양식과 대략적으로 동일한 성인 애착양식을 발견함으로써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생애적 조망에서의 애착의 계속성은 Bowlby(1969)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기초한다. 내적 작동모델이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이다(Main 등, 1985). Bowlby에 의하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후 애착체계의 활성화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은 내적 작동모델을 통하여 지속되고 이후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된, 회피적,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은 각각 질적으로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자기와 타인을 기대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므로 자기관련적 개인의 특성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어 전생을 통하여 특정한 관계형성 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Bretherton, 1992). Kobak과 Sceery(1988)의 지적대로, 애착과 관련된 내적 작동모델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정서조절 방식이 형성되고 표상적 편견이 야기됨으로 개인의 정신병리적 경향도 애착양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자신과 주위의 의미있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 신념에 기초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할 것이고 이것의 활성화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괴로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Bowlby(1977)도 인생초기의 애착경험에 대한 정신적 표상들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물론 정서와 행동의 자기규제 능력에 영향을 주어 이후의 관계형성시에 활성화됨으로 영아기에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상태와 성장한 이후에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후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애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13세부터 19세까지)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한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애착양식에 따라 상이한 정신병리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애착측정방식으로 사용된 AAI (Adult Attachment Interview; George 등, 1985)는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애착에 관한 현재의 마음상태와 애착관련적 경험에 대한 성인의 기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애착 측정방법이다. 면접결과는 애착관련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적 혹은 안정된(autonomous-secure), 거부적(dismissing), 몰두된(preoccupied), 그리고 미해결의(unresolved) 네가지 애착양식으로 구분된다. 비록 AAI에서 사용되는 애

착양식의 명칭이 Ainsworth 등에 의해 구분된 애착양식의 그것과 다르고 3범주가 아닌 4범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AAI의 분류체계를 확립한 Main과 Goldwyn(1985)은 Ainsworth 등과 동일하게 애착관련적 경험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세가지 전략을 가정하고 미해결의 애착양식을 부수적 분류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애착관련적 표상에서의 개인차는 영아기에 평정된 애착행동에서의 개인차와 상당히 유사할 것이므로 자율적 혹은 안정된 애착양식은 영아기의 안정된 애착양식과, 거부적 양식은 회피적 양식과 그리고 몰두된 양식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과 서로 유사하다고 가정하였고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Main과 Goldwyn의 분류체계에 따라 AAI에 대한 반응을 분류한 Rosenstein과 Horowitz는 거부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행동장애나 악물남용장애, 자기애적 혹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및 편집증적 성격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조적으로 몰두된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정서장애, 강박적 성격장애 및 정신분열증적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어 개인의 애착양식은 정신병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Rosenstein과 Horowitz와는 상이하게, Roberts 등(1996)은 Hazan과 Shaver(1987)의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범주척도를 사용하여 애착을 측정하고 우울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Hazan과 Shaver는 Ainsworth 등의 애착분류방식에 기초하여 성인의 애착양식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3개의 애착양식으로 성인의 낭만적 애착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Roberts 등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은 우울증과 유의한 역상관을 나타내나 회피적 애착과 불안한/양가적 애착은 우울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애착양식에 따라 개인의 병리적 경향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AAI를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을 분류한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에서도 안정된 애착을 갖는 대학생들은 자아탄력성이 크고 낮은 수준의 불안과 적대감을 나타내어 가장 바람직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거부적 집단과 몰두된 집단은 안정된 애착집단과 정반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거부적 집

단은 가족으로 부터 소외되고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반면, 몰두된 집단은 큰 불안과 많은 심리적 괴로움을 나타내고 더 높은 수준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고하여 애착양식에 따라 상이한 심리적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각한 정신문제를 지니고 있는 성인들(21세부터 60세까지)을 대상으로 AAI를 사용하여 애착유형을 분류하고 정신병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Dozier(1990)도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정서장애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거부적 애착전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적은 자기노출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동시에 몰두된 애착전략을 사용하는 성인들은 안정된 혹은 거부적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정신병적 증후를 나타내어 애착양식에 따른 차이가 확인될 수 있었다. 10대들의 표본을 사용하여 AAI에 기초된 애착상태를 평정한 결과(Kobak 등, 1991)에서도 우울은 안정되지 못한 애착 중 특히 몰두된 애착양식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몰두된 애착양식이 정신병리와 일관성있게 가장 높은 상관을 갖는 관계형성 방식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AAI를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고 MMPI-2를 사용하여 개인의 정신병리적 특성을 측정 한 Pianta 등(1996)은 애착양식에 따라 MMPI-2의 하위척도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중재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임신 3-6개월의 여성들을 연구대상자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 모두가 애착양식과 상관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신병리적 증후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거부적 애착양식과 몰두된 애착양식은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거부적 애착양식을 갖는 여성들은 독립을 강조하고 낮은 수준의 불안과 비교적 적은 정신적 괴로움을 보고한 반면, 몰두된 애착양식 집단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병리적 증후를 나타내어 차이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자율적 혹은 안정된 애착양식 집단은 두 개의 불안정한 집단이 갖는 점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애착양식과 관련된 일관성있는 증상패턴이 확인되

었다. 다시 말하면 독립을 강조하고 비교적 적은 수준의 정신적 괴로움을 보고하는 거부적 애착양식 집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안정된 애착양식 집단이 몰두된 애착양식 집단보다는 낮으나 거부적 애착양식 집단보다는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Pianta 등은 주장하였다.

애착과 정신병리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특히 Pianta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소위 정상적 청소년집단에서도 애착양식과 MMPI로 측정된 정신병리적 증상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MMPI가 일반적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닌긴 하지만, MMPI의 병리적 분류개념이 정상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김중술, 1996), 이 연구에서는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MMPI 하위요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애착과 정신병리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면접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자기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성인의 애착과 우울증의 관계를 연구한 Roberts 등(1996)이 사용한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이고 다른 하나는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이다.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는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분류해낼 수 있는 반면, IPPA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애착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다.

IPPA를 사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장휘숙, 1997a; Paterson 등, 1995; Paterson 등, 1994; KennY, 1987; Armsden과 Greenberg, 1987)은 청년기동안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친구에 대한 애착보다 더 중요하며 안녕의 더 강력한 예언자라고 밝히고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자 청소년들은 아직도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이 그들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라 MMPI 하위척도들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동시에 IPPA를 사용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친구 중 누가 이 시기 청소년들의 부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정상집단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MMPI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대상자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에 따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라 MMPI 하위척도들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판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MMPI의 전반적인 반응패턴과 애착의 관계도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이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Hazan과 Shaver가 분류한 애착양식에 따라 MMPI 하위척도들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IPPA로 측정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 따라 MMPI 하위척도들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들은 군집분석에 의해 추출된 군집을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대전시에 소재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2학년 4개 반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표집하였다. 부모 중 어느 한편이 부재하거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한 학생은 178명이었다. 애착검사의 실시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그리고 MMPI는 방과후에 동일한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애착검사는 약 20분 그리고 MMPI는 1시간에서 1시

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15.87세(SD=0.82)였다.

2. 척도

1) 애착척도

(1) Hazan과 Shaver의 애착척도

연구대상자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을 구분하기 위하여 Ainsworth 등이 분류한 애착양식에 기초하여 제작된, Hazan과 Shaver의 범주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48.4%가 안정된 애착, 26.4%는 회피적 애착 그리고 25.3%는 불안한/양가적 애착으로 분류되었다.

(2) Arnsden과 Greenberg의 IPPA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n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가 사용되었다. 원래의 검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Paterson 등(1995)은 Arnsden과 Greenberg가 개발한 원래의 부모문항에서 친구문항과 상이한 3개의 문항을 제외한 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게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되 애착인물만 다르게 하여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aterson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 각각에 대해 25문항씩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고 5점 척도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원래의 IPPA는 세 개의 하위척도(신뢰, 의사소통 및 소외)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결과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Paterson 등과 동일하게 하위척도를 무시하고 전체점수를 계산하였다.

Paterson 등이 개작한 IPPA는 3주의 높은 검사재

검사 신뢰도와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94, 아버지에 대한 α 계수는 .94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α 계수는 .48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어머니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1, 아버지 문항 .92 그리고 동년배 문항은 .89였다.

2) MMPI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는 경험에 기초된 자기보고검사로서 5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과적 진단을 위한 분류검사이다. 그러나 정상인의 행동설명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반적 성격특성에 관한 유추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추세에 있다(김중술, 1996). 미국에서는 기존 MMPI의 개정판이 제작되어 MMPI-2가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개정판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원래의 MMPI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MMPI-2를 사용한 Pianta 등의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Pianta 등이 사용한 MMPI-2는 MMPI-1 문항들 중에서 타당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새로운 문항들을 삽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규준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의 검사와 동일한 타당도 척도와 임상적 척도체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신병리적 경향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검사자는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의 두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각 반응은 비정상적 행동을 측정하는 10가지의 임상척도와 그 사람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의 타당도 척도에 따라 채점된다.

결과 및 해석

1. Hazan과 Shaver가 분류한 애착양식에 따른 MMPI 하위척도들의 차이검증

Hazan과 Shaver가 분류한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에 따라 MMPI 하위척도들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응하지 않은 문항들이 거의 없어 무응답 척도는 타당도 척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이 정상집단이기 때문에 MMPI의 모든 하위척도들의 점수가 정상범위안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원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타당도 척도 중 F척도와 임상척도 중 우울증 척도(D), 편집증 척도(Pa), 강박증 척도(Pt), 정신분열증 척도(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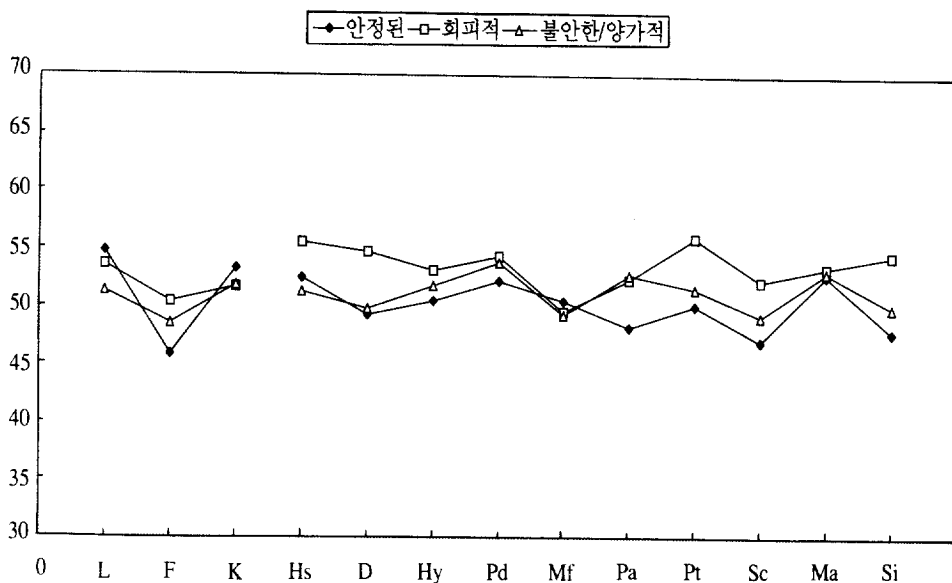
그리고 내향성 척도(Si)에서 애착양식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F척도, D척도, Pt척도 그리고 Sc척도에서 회피적 집단이 안정된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내향성 척도의 경우에는 회피적 집단이 안정된 집단은 물론 불안/양가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가지 애착양식의 MMPI 프로파일과 함께 해석하면(그림1 참조), 회피

<표 1> 세가지 애착양식에 따른 MMPI 하위척도들의 평균(표준편차), 변량분석 및 Bonferroni 검증결과

| MMPI하위척도 | 안정된애착 N=86 | 회피적애착 N=47 | 불안한/ 양가적애착 N=45 | F | Post hoc |
|---|---------------|---------------|-----------------------|---------|----------|
| L(Lie)부인척도 | 54.76(9.74) | 53.53(8.20) | 51.24(9.42) | 2.12 | |
| Frequency(Infrequency) 회귀척도 | 45.85(7.08) | 50.28(10.03) | 48.53(7.90) | 4.80** | 2 > 1 |
| K(K-correction) K교정척도 | 53.30(9.49) | 51.64(11.44) | 51.82(9.51) | 0.55 | |
| Hs(Hypochondriasis) 건강염려증 | 52.44(10.06) | 55.49(11.23) | 51.27(10.51) | 2.06 | |
| D(Depression) 우울 | 49.29(8.87) | 54.77(11.60) | 49.78(10.73) | 4.79** | 2 > 1 |
| Hy(Hysteria) 히스테리 | 50.44(9.52) | 53.17(9.73) | 51.73(9.33) | 1.27 | |
| Pd(Psychopathic Deviate) 반사회성 | 52.22(9.34) | 54.28(11.30) | 53.78(10.61) | 0.73 | |
| Mf(Masculinity-Femininity)남성특 성-여성특성 | 50.42(9.30) | 49.55(7.89) | 49.27(10.27) | 0.28 | |
| Pa(Paranoia)편집증 | 48.26(8.67) | 52.38(12.30) | 52.73(10.84) | 3.89* | |
| Pt(Psychasthenia)강박증 | 50.07(9.56) | 55.96(11.24) | 51.53(10.16) | 5.15** | 2 > 1 |
| Sc(Schizophrenia) 정신분열증 | 47.02(8.76) | 52.19(12.48) | 49.09(10.58) | 3.84* | 2 > 1 |
| Ma(Hypomania)경조증 | 52.69(9.28) | 53.36(10.49) | 52.98(8.16) | 0.08 | |
| Si(Social Introverson) 내향성 | 47.86(7.43) | 54.49(9.99) | 49.87(8.98) | 9.13*** | 2 > 1, 3 |

* p<.05, ** p<.01, *** p<.001



〈그림 1〉 세가지 애착양식의 MMPI 프로파일

적 집단이 회피척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했지만, 세 개의 애착집단 모두가 타당도 척도인 L척도, F척도 그리고 K척도에서 V형태를 나타내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 특히 안정된 애착양식 집단의 V형태가 가장 뚜렷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이 가장 큰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임상척도에서도 회피적 집단이 우울증 척도, 강박증 척도 및 정신분열증 척도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일관성있게 높은 점수를 얻어 회피적 집단은 세가지 애착양식 집단 중 정신병리적 위험성이 가장 큰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더욱이 임상척도의 모든 하위척도들에서 유의한 집단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 경향은 안정된 애착양식 집단이 대부분의 하위척도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회피적 애착양식 집단은 가장 높은 점수를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집단은 안정된 집단과 회피적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여 일관성있는 집단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었다. 또한 편집증 척도에서도 회피적 집단과 불안한/양가적 집단이 안정된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는 하였지만, 사후분석에 의해 유의한 집단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하위척도들과 차이를 보였다. 아마도 Bonferroni 검정이 다른 사후분석 방법보다(예를들면 Tukey 검정) 2종오류의 가능성이 더 높은 데 기인된 결과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2. IPPA로 측정한 어머니, 아버지, 동년배 애착점수에 대한 MMPI 하위척도들에서의 차이검증

애착과 MMPI 각 하위척도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IPPA로 측정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를 상, 중, 하의 세집단으로 나누고 MMPI 하위척도 각각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중하의 집단구분은 임의적인 것이긴 하지만, IPPA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대체적인 경향이 IPPA로 측정된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점수의 상, 하 혹은 상, 중, 하집단에 따라 자아상과 자아존중감 및 안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구분하였다. 일원변량분석에 의해 유의한 집단차이가 나

타난 하위척도에 대해서는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각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점수의 증감에 따라 MMPI 하위척도 점수들이 함께 증감하는 직선관계(1차함수관계)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곡선관계(2차함수관계)를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이 양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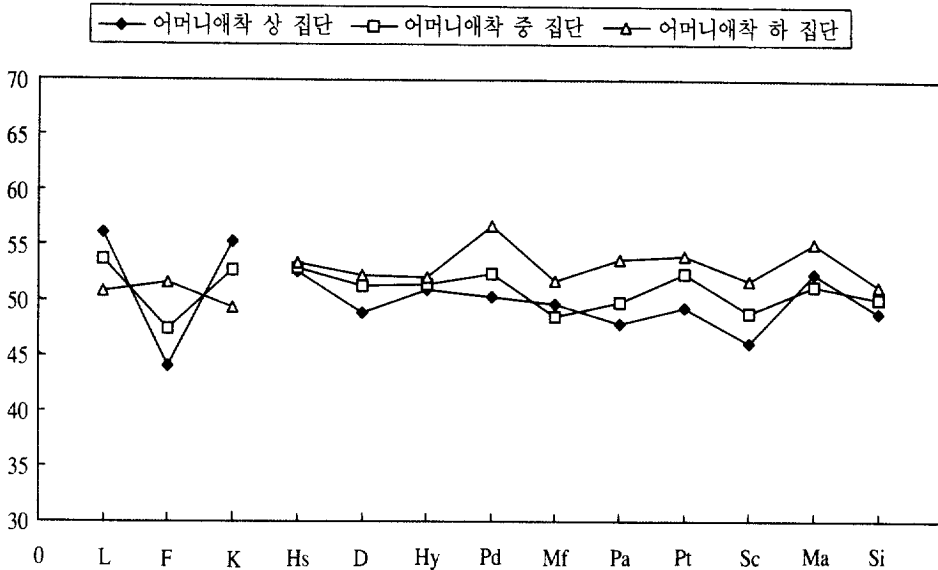
세분석을 통하여 각 애착집단의 MMPI 점수들은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범위를 벗어난 점수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예측될 수 있게 된다.

〈표 2〉는 IPPA로 측정된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를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따른 MMPI 하위척도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동시에 유

〈표 2〉 어머니애착수준(상,중,하)에 따른 MMPI하위척도들의 평균(표준편차)과 변량분석 및 Bonferroni 사후분석 및 추세분석결과

| MMPI하위척도 | 상 집단 N=56 | 중 집단 N=65 | 하 집단 N=57 | F | Post hoc | 추세분석 |
|---------------------------------------|--------------|--------------|--------------|----------|----------|----------------------------|
| L(Lie) 부인척도 | 56.11(9.09) | 53.77(9.68) | 50.77(8.53) | 4.85** | 1 > 3 | 1차 : 9.63*** 2차 : 0.05 |
| F(Frequency/Infrequency) 회귀척도 | 44.11(7.22) | 47.42(7.35) | 51.54(8.84) | 12.84*** | 3 > 1, 2 | 1차 : 25.55*** 2차 : 0.11 |
| K(K-correction) K고정척도 | 55.38(9.24) | 52.78(11.32) | 49.32(8.27) | 5.47** | 1 > 3 | 1차 : 10.85*** 2차 : 0.08 |
| Hs(Hypochondriasis) 건강염려증 | 52.52(11.09) | 52.88(9.82) | 53.46(10.98) | 0.11 | | |
| D(Depression) 우울 | 48.93(10.53) | 51.25(9.77) | 52.32(10.67) | 1.60 | | |
| Hy(Hysteria) 히스테리 | 50.91(9.99) | 51.38(9.87) | 52.17(8.80) | 0.25 | | |
| Pd(Psychopathic Deviate) 반사회성 | 50.30(9.15) | 52.43(9.88) | 56.79(10.61) | 6.34** | 3 > 1, 2 | 1차 : 12.12*** 2차 : 0.52 |
| Mf(Masculinity-Feminity) 남성특성-여성특성 | 49.66(9.35) | 48.51(8.91) | 51.72(9.16) | 1.91 | | |
| Pa(Paranoia) 편집증 | 47.91(8.56) | 49.86(9.49) | 53.70(12.37) | 4.70* | 3 > 1 | 1차 : 9.03*** 2차 : 0.35 |
| Pt(Psychasthenia) 강박증 | 49.43(10.14) | 52.40(9.47) | 54.05(11.31) | 2.93 | | |
| Sc(Schizophrenia) 정신분열증 | 46.09(9.54) | 48.86(8.98) | 51.72(12.22) | 4.23* | 3 > 1 | 1차 : 8.46*** 2차 : 0.01 |
| Ma(Hypomania) 경조증 | 52.48(8.55) | 51.34(9.96) | 55.21(8.95) | 2.78 | | |
| Si(Social Introversion) 내향성 | 48.86(8.78) | 50.15(8.69) | 51.32(9.38) | 1.07 | | |

* p<.05, ** p<.01, *** p<.001



〈그림 2〉 어머니 애착점수 상, 중, 하집단의 MMPI 프로파일

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난 MMPI 하위척도들에 대한 사후분석 및 추세분석결과도 <표 2>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표 2>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라 세 개의 타당도 척도(L, F, K척도)와 반사회성 척도(Pd), 편집증 척도(Pa) 그리고 정신분열증 척도(Sc)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타당도 척도 중 L척도와 K척도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F척도에서는 하집단이 상집단이나 중집단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애착점수에 따른 집단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2>의 MMPI 프로파일과 함께 해석하면, 어머니 애착의 상집단과 중집단은 타당도 척도에서 V형태를 나타내고 하집단은 역전된 V형태를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성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임상척도 중 유의한 집단차이가 나타난 반사회성 척도, 편집증 척도 그리고 정신분열증 척도에

서는 일관성있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하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병리적 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자들이 고등학교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반사회성 척도에서의 유의한 집단 차이는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이 비행행동이나 일탈행동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 2>를 참고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 상집단이 MMPI 하위척도들에서 일관성있게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그 다음이 중집단이며 하집단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개인의 부적응적 경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추세분석결과 유의한 집단 차이를 나타낸 모든 MMPI 하위척도들에서 1차방정식의 선형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L척도와 K척도 점수는 상승하고 나머지 F척도, Pd척도, Pa척도 그리고 Sc척도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가 낮아질수록 각 척도들의 점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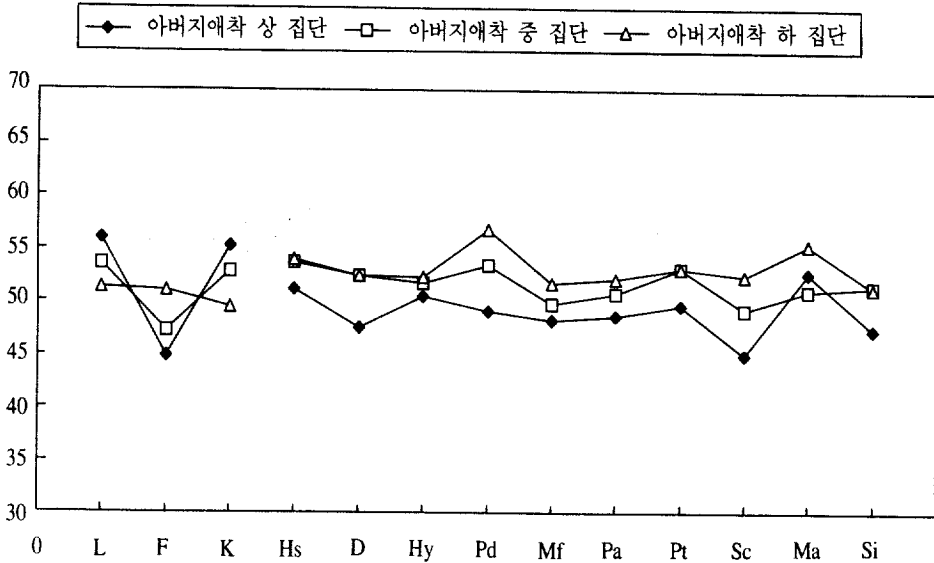
〈표 3〉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따른 MMPI 하위척도 점수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원변량분석, 사후분석 및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에 의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동일하게 세 개의 타당도 척도(L, F, K척도)에서 유의한 집단차이

를 나타내었고 사후분석으로 실시된 Bonferroni 검증에서도 L척도와 K척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고 F척도에서는 반대로 하집단이 상집단과 중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패턴과 일치하였다. 〈그림 3〉의 MMPI 프로파일과 함께 해석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에서와 동일하

〈표 3〉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상, 중, 하 집단에 따른 MMPI 하위척도들의 평균(표준편차), 변량분석, 사후검증 및 추세분석 결과

| MMPI하위척도 | 상 집단 N=55 | 중 집단 N=65 | 하 집단 N=58 | F | Post hoc | 추세분석 |
|---|--------------|--------------|--------------|---------|----------|----------------------------|
| L(Lie) 부인척도 | 55.87(9.25) | 53.55(9.30) | 51.33(9.06) | 3.44* | 1 > 3 | 1차 : 6.88*** 2차 : 0.01 |
| F(Frequency/Infrequency) 회귀척도 | 44.84(7.46) | 47.15(7.23) | 51.02(9.19) | 8.69*** | 3 > 1, 2 | 1차 : 16.91*** 2차 : 0.39 |
| K(K-correction) K교정척도 | 55.25(9.29) | 52.88(11.21) | 49.43(8.48) | 5.07** | 1 > 3 | 1차 : 9.97*** 2차 : 0.12 |
| Hs(Hypochondriasis) 건강염려증 | 51.07(10.26) | 53.71(10.59) | 53.88(10.73) | 1.27 | | |
| D(Depression) 우울 | 47.53(9.82) | 52.37(9.58) | 52.33(11.05) | 4.29* | 2, 3 > 1 | 1차 : 6.31* 2차 : 2.39 |
| Hy(Hysteria) 히스테리 | 50.47(9.57) | 51.63(9.24) | 52.29(9.92) | 0.52 | | |
| Pd(Psychopathic Deviate) 반사회성 | 49.05(9.70) | 53.40(9.48) | 56.78(10.15) | 8.85*** | 2, 3 > 1 | 1차 : 17.63*** 2차 : 0.10 |
| Mf(Masculinity-Femininity)남 성특성-여성특성 | 48.13(9.18) | 49.75(8.84) | 51.74(9.34) | 2.23 | | |
| Pa(Paranoia) 편집증 | 48.58(9.38) | 50.66(10.32) | 52.07(11.42) | 1.60 | | |
| Pt(Psychasthenia) 강박증 | 49.56(8.76) | 53.05(10.14) | 53.12(11.84) | 2.20 | | |
| Sc(Schizophrenia) 정신분열증 | 44.96(7.86) | 49.09(9.63) | 52.43(12.26) | 7.74*** | 3 > 1 | 1차 : 15.44*** 2차 : 0.06 |
| Ma(Hypomania) 경조증 | 52.64(8.38) | 51.03(10.35) | 55.36(8.49) | 3.45* | 3 > 2 | 1차 : 2.49 2차 : 4.31* |
| Si(Social Introversion) 내향성 | 47.36(8.55) | 51.46(8.48) | 51.22(9.38) | 3.91* | 2 > 1 | 1차 : 5.43* 2차 : 2.50 |

* p<.05, ** p<.01, *** p<.001



〈그림 3〉 아버지 애착점수에서 상, 중, 하집단의 MMPI 프로파일

게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상집단과 중집단은 타 당도 척도에서 V형태를 그리고 하집단은 역전된 V 형태를 나타내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임상척도에서는 우울증 척도(D) 반사회성 척도(Pd) 정신분열증 척도(Sc) 경조증 척도(Ma) 그리고 내향성 척도(Si)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내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는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결과 D척도와 Pd척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중집단과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고 Sc척도에서는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Ma척도에서는 하집단이 중집단보다 그리고 Si척도에서는 중집단이 상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아버지에 대한 낮은 애착집단이 임상척도에서 일관성있게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일하게 반사회성 척도와 정신분열증 척도에 차이를 가져오고 특히 반사회성 척도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중집단과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유

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정도와 유사하게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이나 이탈행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우울증 척도와 경조증 척도 및 내향성 척도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부적응적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림 3〉에 의해서도 아버지에 대한 애착 상집단이 MMPI 하위척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그 다음이 중집단이며 하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증후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추세분석결과, Ma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들이 1차방정식의 선형관계를 나타내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L, K척도는 상승하고 F척도는 감소하며 임상척도인 D척도, Pd척도, Sc척도 그리고 Si척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Ma척도에서는 2차방정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가 중간정도 일 때 Ma점수가 가장 낮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Ma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와는 대조적으로 MMPI 하위척도들에서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서는 상, 중, 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부적응적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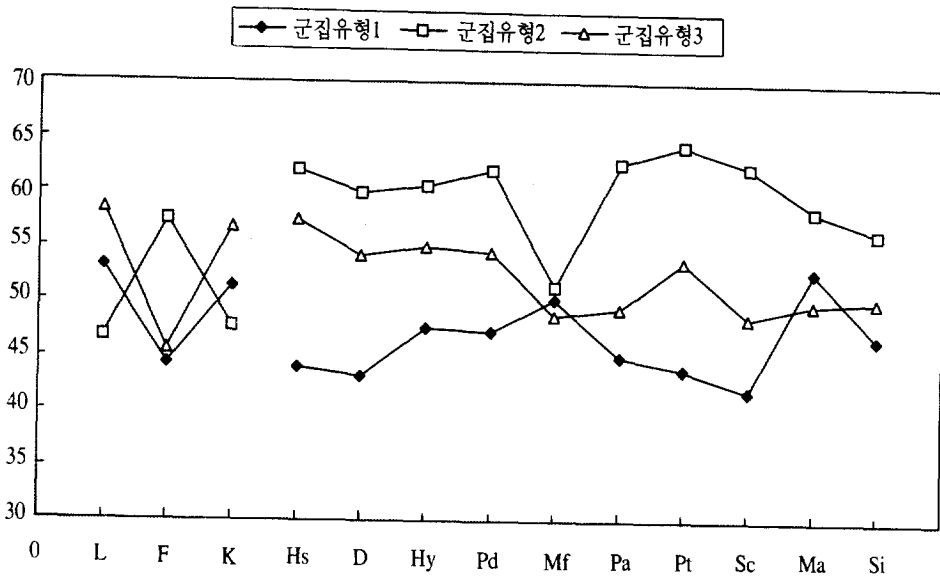
3. MMPI 하위척도들의 반응패턴에 대한 판별분석

MMPI 하위척도들은 개별적인 척도수준에서 갖는 의미외에 전반적인 반응패턴에 따라서도 의미있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먼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MMPI 하위척도 점수들로부터 동질적인 군집을 추출함으로써 연구대상자들을 MMPI 반응패턴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구분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이 추출된 군집들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

〈표 4〉 군집유형에 따른 MMPI 하위척도들의 평균(표준편차)과 변량분석 및 사후분석결과

| MMPI하위척도 | 군집유형 1 N=73 | 군집유형 2 N=40 | 군집유형 3 N=65 | F | Post hoc |
|-------------------------------------|----------------|----------------|----------------|-----------|-----------|
| L(Lie)부인척도 | 53.05(8.63) | 46.67(6.74) | 58.32(8.74) | 24.66*** | 3 > 1 > 2 |
| Frequency(Infrequency) 회귀척도 | 44.23(5.94) | 57.35(7.91) | 45.65(6.14) | 57.72*** | 2 > 1, 3 |
| K(K-correction) K교정척도 | 51.38(8.90) | 47.73(7.93) | 56.66(10.82) | 11.91*** | 3 > 1, 2 |
| Hs(Hypochondriasis) 건강염려증 | 43.99(5.25) | 62.03(9.31) | 57.43(7.79) | 99.03*** | 2 > 3 > 1 |
| D(Depression) 우울 | 43.11(7.68) | 59.78(9.04) | 54.08(7.13) | 67.42*** | 2 > 3 > 1 |
| Hy(Hysteria) 히스테리 | 47.49(5.78) | 60.53(7.88) | 54.91(6.37) | 102.51*** | 2 > 3 > 1 |
| Pd(Psychopathic Deviate)반사회성 | 47.22(8.19) | 61.95(9.03) | 54.42(8.49) | 39.98*** | 2 > 3 > 1 |
| Mf(Masculinity-Femininity)남성특성-여성특성 | 50.23(9.25) | 51.35(8.61) | 48.63(9.40) | 1.17 | |
| Pa(Paranoia)편집증 | 44.89(7.87) | 62.60(9.31) | 49.29(7.13) | 65.03*** | 2 > 3 > 1 |
| Pt(Psychasthenia)강박증 | 43.85(6.97) | 64.25(7.15) | 53.60(6.46) | 118.06*** | 2 > 3 > 1 |
| Sc(Schizophrenia)정신분열증 | 41.86(6.54) | 62.28(8.09) | 48.58(6.86) | 109.06*** | 2 > 3 > 1 |
| Ma(Hypomania)경조증 | 52.81(7.89) | 58.33(8.52) | 49.77(9.84) | 11.74*** | 2 > 1, 3 |
| Si(Social Introversion)내향성 | 46.70(7.60) | 56.35(8.47) | 50.12(8.67) | 17.90*** | 2 > 3 > 1 |

* p<.05, ** p<.01, *** p<.001



〈그림 4〉 세가지 군집유형의 MMPI 프로파일

에서 판별분석이 실시되었다.

군집의 수는 사례수의 편중을 막기위하여 세개로 제한되었다. 군집의 수가 네개 이상이 되면, 하나의 군집에 할당되는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을 뿐아니라 MMPI 점수의 대체적 경향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어 4개 이상의 군집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추출된 세 개의 군집 유형에 따른 MMPI 하위척도들에서의 평균(표준편차)을 계산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세가지 군집의 MMPI 프로파일은 〈그림 4〉와 같다. 〈표 4〉와 〈그림 4〉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군집 유형1은 L척도, F척도 그리고 K척도로 구성되는 타당도 척도에서 V형태를 나타내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반응경향을 지니고 있었고 10개의 임상척도들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갖는 경향이 있었다. 군집 유형2는 군집 유형1과는 대조적으로 타당도 척도에서 역전된 V형태를 나타내어 자신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려는 반응경향과 함께 임상척도들에서는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군집 유형3은 타당도 척도에서는 군집 유형1과 유사하게 V형태를 나타내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고 임상척도들에서는 군집 유형1과 군집 유형2의 중간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가 군집 유형1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정확판별률은 47.95%로서 우연수준인 33.3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군집 유형2에 대한 정확판별률은 더욱 높아 55.0%에 이르렀으나 군집 유형3에 대한 정확판별률은 32.31%로서 우연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동시에 3인의 애착인물에 대한 애착점수들이 군집 유형3을 군집 유형1로 오관할 확률(40.0%)이 정확판별률보다 오히려 더 높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확판별율은 우연수준보다 높은 45.08%였다. 또한 〈표 5〉를 통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군집 유형의 예측에 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는 8%의 설명력을 지니

〈표 5〉 MMPI의 군집유형에 따른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점수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 실제군집 | 예측된 군집 | | |
|-----------------|-------------------|-------------------|-------------------|
| | 1 | 2 | 3 |
| 1 | 47.95% (35/73) | 28.77% (21/73) | 23.29% (17/73) |
| 2 | 30.00% (12/40) | 55.00% (22/40) | 15.00% (6/40) |
| 3 | 40.00% (26/65) | 27.69% (18/65) | 32.31% (21/65) |
| 정확하게 예측된 비율의 평균 | | 45.08% | |
| 독립변인 | R ² | F | |
| 어머니 애착 | .07 | 6.71** | |
| 아버지 애착 | .08 | 7.91*** | |
| 동년배 애착 | .03 | 2.30 | |

** p<.01, *** p<.001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유의한 설명량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정상집단의 고등학교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하였다. 애착척도로서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와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가 사용되었다. 변량분석을 통하여 3범주 척도에 의해 구분된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IPPA에 의해 점수화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MMPI의 반응패턴에 따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별분석도 함께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은 MMPI의 타당도 척도에서 모두 V형태를 나

타내었고 그 중에서도 안정된 애착양식집단의 V형태가 가장 뚜렷하였다. 임상척도에서는 우울증 척도, 강박증 척도, 정신분열증 척도 및 내향성 척도에서 회피적 집단이 안정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세가지 애착양식집단 중 정서적 부적응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는 집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IPPA로 측정된 어머니에 대한 애착양식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양식은 MMPI 하위척도들에서 다소 차이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애착 상집단이 MMPI 하위척도들에서 일관성있게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하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중집단이 두집단의 가운데 위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는 타당도 척도 모두와 반사회성 척도, 편집증 척도 및 정신분열증 척도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는 세 개의 타당도 척도와 5개의 임상척도 즉 우울증 척도, 반사회성 척도, 정신분열증 척도, 경조증 척도 및 내향성 척도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년배에 대한 애착에서는 유의한 집단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판별분

석결과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는 상이하게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군집 유형의 예측에 유의한 설명량을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개인의 부적응적 경향성은 동년배에 대한 애착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여기서 논의된 MMPI 하위척도 점수들이 비록 30-70점 사이의 정상범위내에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개인이 갖는 애착양식에 따라 상이한 정서적 부적응이 나타나고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는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Rosenstein & Horowitz, 1996; Adam 등, 1996; Pianta 등, 1996; Dozier, 1990)과 동일하게 정상집단에서도 애착양식에 따라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라 MMPI 하위척도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이 연구의 결과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개인의 부적응적 경향성은 대단히 어린 연령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세가지 애착양식 집단 중 회피적 애착양식 집단이 우울증 척도, 강박증 척도, 정신분열증 척도 및 내향성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개인의 정신병리적 증후는 몰두된 혹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Rosenstein & Horowitz, 1996; Pianta 등, 1996; Dozier, 1990)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거부적 혹은 회피적 애착양식을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장애나 약물남용장애 혹은 반사회적 성격 특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회피적 애착양식 집단도 반사회성 척도와 같은 행동문제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유의한 집단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집단이 아닌 정상집단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Kobak과 Sceery(1988)도 몰두된 애착양식을 갖는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고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상집단의 대학생들이 갖는 우울증후는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은 물론 회피

적 애착양식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다(장휘숙, 1997b; Roberts 등, 1996). 문제는 거부적 혹은 회피적 애착양식을 갖는 사람들이 그들의 애착관계를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괴로움을 억압하고 고통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애착관계를 이상화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Adam 등, 1996). 비록 이 연구의 회피적 애착양식을 갖는 청소년들은 정상범위내의 점수를 갖기는 하지만, 애착관계를 이상화하려는 그들의 경향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하위척도들에서 다른 두 개의 애착양식집단 보다 다소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동시에 타당도 척도인 L척도, F척도 및 K척도에서 세 개의 애착양식집단 모두가 V형태의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상집단의 개인들은 누구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임상적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Rosenstein & Horowitz, 1996; Adam 등, 1996)은 애착양식은 물론 개인의 정신병리적 특성에서 성차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자 고등학교 청소년들과 동일 연령의 남자 청소년들 및 더 어린 연령의 청소년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IPPA로 측정된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하집단이 회피척도, 반사회성 척도, 편집증 척도 및 정신분열증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Pianta 등(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몰두된 집단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Main과 Goldwyn(1985)의 해석에 의하면, 몰두된 애착양식집단으로 분류되는 개인들은 자신을 상처받기 쉽고 괴로움에 빠져있다고 지각하고 무기력하며 자주 화를 내므로 정신적으로 혼란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이 정상집단의 여자 청소년들이어서 MMPI 하위척도 점수들이 모두 정상범위내에 있어 MMPI-2를 사용한 Pianta 등의 연구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의한 집단차이를 나타낸 MMPI 하위척도들이 병리적 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과 정서

적 부적응의 경향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도 하집단이 회귀척도, 우울증 척도, 반사회성 척도, 정신분열증 척도 및 내향성 척도에서 일관성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와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낮은 애착도 정서적 부적응의 경향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조증 척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중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상집단과 하집단은 오히려 낮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을 나타내어 다른 하위척도들과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따라 MMPI 하위척도에서 상이한 집단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세 개의 타당도 척도와 반사회성 척도 및 정신분열증 척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척도들에서는 다소 차이 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그 증거로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정도는 편집증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는 우울증 척도, 경조증 척도 및 내향성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MMPI의 더 많은 하위척도들에서 차이를 야기시켰다. IPPA로 측정된 청소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비교하면 일관성있게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장휘숙, 1997; Paterson 등, 1995),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MMPI의 더 많은 하위척도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이 정신병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몇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질적으로 상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녀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어머니와 주된 생계유지자로서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의 애착관련적 내적 작동모델의 형성에 상이한 영향을 줄 것이고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정서적 부적응이나 병리적 경향성에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양자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에게 모두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아버지와 충분한 정도의 애착을 형성할 수 없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정서적 부적응이나 병리적 경향성과 더 많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Freud 주장대로 연구대상자들이 여자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그들의 정서적 부적응의 경향성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는 여자 청소년들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성차에 기인된 현상들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들 뿐아니라 남자 청소년들이 함께 포함되는 연구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 세 개의 타당도 척도와 반사회성 척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타당도 척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상집단과 중집단은 일관성있게 V형태를 나타내었고 하집단은 역전된 V형태를 나타내어 서로 일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록 임상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MMPI 하위척도 점수에서 정상범위내에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바람직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경향은 병리적이기보다 오히려 개인의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모두에서 확인된 반사회성 척도에서의 유의한 집단차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이 갖는 애착양식은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가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 혹은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중요하다는 연구(Hoffman 등, 1988)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Gecas & Schwalbe, 1986)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연구(장휘숙, 1997a; Paterson 등, 1995)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과 부적응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경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대상자들이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동년배의 영향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판별분석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부적응과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인생초기의 양육자와의 애착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정서와 행동의 규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후의 정신병리적 증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Bowlby (1977)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동년배 애착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는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척도나 MMPI가 모두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개인의 진정한 애착정도나 정신병리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애착양식이나 애착정도는 사회적 바람직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어적 경향성이 혼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다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회피적 혹은 거부적 애착양식을 갖는 개인들은 애착경험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그들의 생리적 각성수준이 높아진다는 보고(Dozier & Kobak, 1992)도 있기 때문에, 질문지 검사나 AAI와 같은 임상적 면접과 함께 생리적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면 보다 더 타당성있는 애착의 측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정신병리적 지표로 사용된 MMPI도 검사 자체가 타당도 척도를 포함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미 개정판인 MMPI-2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보고 척도가 갖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중술(1996). 다면적 인성검사 - MMPI의 임상적 해

석 -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휘숙(1997a).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학회. 게재예정.*
- 장휘숙(1997b).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발달, Vol. 10, No.2, 123-138.*
- Adam, K. S., Sheldon-Keller, A. E., & West, M. (1996). Attachment Organization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in Clinic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64-27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427-454.*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Clinical Psychology, 18, 683-697.*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421-431.*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No. 5, 759-775.*
- Dozier, M. (1990). Attachment Organization and Treatment Use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

- chopathology, 2, 47-60.
- Dozier, M., & Kobak, R. R. (1992). Psychophysiology in Attachment: Converging Evidence for Deactivating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63, 1473-1480.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37-46.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3, 511-524.
- Hoffman, M. A., Ushpiz, V., & Levy-Shiff, R. (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307-316.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R., Sudler, N., & Gamble, W. (1991).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athway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61-474.
- Main, M., & Goldwyn, R. (1985).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ikulincer, M., Florian, V., & Tolmacz, R. (1990). Attachment Styles and Fear of Personal Death: A Case Study of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2, 273-280.
- Overton, W. F., & Horowitz, H. A. (199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tegrations and Differentiations.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3, Models and Integrations*(pp. 1-42),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Pianta, R. R., Egeland, B., & Adam, E. K.. (1996).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elf-Reported Psychiatric Symptomatology as Assessed by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73-281.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310-320.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44-253.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Adolescent Attachment and the Subscales of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subscales on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according to attachment styles and attachment to mother, father and peers in high school girl adolescents. One way ANOVA revealed that avoidant attachment group seemed to have more maladjustive possibilities than secure and anxious/ambivalent groups. Also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seeme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with adolescent's maladjustive disposition, but attachment to peers not related to their maladjustment. Although all profiles of MMPI were within the normal r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aladjustive inclinations of the adolescents seem to begin very early in their life.